제2차 대회 입상자들과 관계자들 단체사진

14세 이하 꿈나무 축제
ATF 영월 이형택 테니스재단 대회

글_ (영월)박준용 기자 **사진_** (영월)김도원

제1차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톱시드 한찬희(마포중, 가운데)가 2번시드 김민재(서초중)를 1시간 53분 만에 2-6 6-3 10-7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사진 가장 왼쪽은 이형택 이사장, 가장 오른쪽은 이동규 강원도테니스협회 부회장)

제1차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김민서(오산중, 가운데)가 장지오(경민여중)를 2시간 29분의 접전 끝에 2-6 6-3 10-8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제1차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이해진-주태완(이상 신안중)조가 장우혁-김시우(이상 매화중) 조를 6-3 6-3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김성수 영월군테니스협회장)

제1차 대회 여자복식 우승은 결승에서 김유진(안곡중)-매디 제섭(미국) 조를 3-6 7-5 10-6으로 꺾은 이경서-명세인(이상 정자중, 왼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가 차지했다

제2차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강상훈(마산동중)이 주태완(신안중)을 6-0 4-6 10-6로 제압하고 시즌 첫 우승을 달성했다. 강상훈은 "끈기를 앞세워 경기를 잘 풀어나갔고 상대 실수도 많았다. 우승하기까지 힘든 고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우승까지 차지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제2차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는 김유진이 명세인(정자중)을 7-5 1-6 10-7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김유진은 "날씨가 무더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적응했다"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오스타펜코와 크비토바를 좋아한다. 이 선수들처럼 나중에 톱 선수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김유진은 최온유(남양초)와 호흡을 맞춘 복식에서도 정상에 올라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제2차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는 김동건-김정유(이상 안동중) 조가 주태완-이해진(이하 신안중) 조를 6-4 6-2로 꺾고 우승했다.

이형택, "정현,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글_ (영월)박준용 기자 사진_ (영월)김도원

제1차 대회 복식 준우승을 차지한 매디(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 테니스의 전설 이형택(이형택아카데미 이사장)이 지난 7월 28일부터 2주간 ATF U14 이형택 테니스재단 대회를 위해 강원도 영월을 찾았다. 정확히 1년 만의 한국 방문이다. 2016년 12월에 미국으로 떠난 이형택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오랜만의 한국 방문인 것 같다"고 인사를 전하자 그는 웃으며 "미국에서 아카데미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다. 얼마 전에는 한 대학의 테니스장을 인수했다. 그곳에는 체육관, 트랙, 피트니스 센터 등 테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서 "학교 수업도 아카데미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시절 한국 테니스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는 2009년 은퇴 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아카데미를 설립해 후배 양성에 힘써왔다. 그중 ATF U14 이형택 테니스재단 대회는 이형택이 가장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3년에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18세까지 출전하는 ITF(국제테니스연맹) 주니어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10~14세까지의 선수들을 위한 대회로 매년 여름방학 때 1, 2차로 나눠 2주 동안 열린다. 또 국제대회 경험과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경기 방식이 토너먼트가 아닌 피드-인-콘솔레이션 방식(패자전 진행)으로 1위부터 32위까지 순위를 매기게 되며 이는 국제대회 경기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게 대회 기간 매일 경기를 치르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형택은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 기량이 뛰어난 한국 여자 주니어 선수들을 볼 수 있었다"면서 "실력이 좋은 선수는 어느 대회에 뛰어도 상관없지만 이 대회는 기회를 갖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좋은 대회다. 또 콘솔레이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투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넘어서야 한다.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 대회를 어떻게든 꾸준히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형택은 이번 대회에 미국에서 지도하고 있는 저스틴 정과 매디 제섭과 동행했고 매디는 제1차 대회 여자복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정현(한국체대)과 관련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전 한국 선수 최고 세계랭킹인 이형택의 36위를 정현이 경신했고 역시 한국 남자 선수 최고 그랜드슬램 성적인 이형택의 US오픈 16강(00년, 07년)도 올해 호주오픈에서 정현이 깼다.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형택은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아쉽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면서 최근 부진을 보이는 정현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현재 정현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다음 대회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현은 많은 관심을 받아 적당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또 지금은 시드도 받아 1회전에서 지는 것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아마 정현은 정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벗어날지가 관건이다. 그래도 정현이 잘 극복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ATF U14 이형택 테니스재단 대회가 끝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형택이 설계하는 미래는 무엇일까? 그는 "아직 미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아카데미에 집중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